

할렐루야!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시는 분들과 온 가족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8월 18일 탄자니아 도착예정이었던 저희는 두바이 공항 내에서 29시간 대기로 인해 20일 다르살렘 수도 공항에 도착 후 하루를 머물고, 차로 사역지까지 12시간의 이동을 통해 겨우 21일 밤 늦게 도착 할 수 있었습니다.

탄자니아에 도착해 보니 공항 내에서는 마스크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는데, 공항 밖의 모습은 평소 보이는 일상과 다름없이 모두 마스크 없이 다니는 것을 보니 마치 다른 세상에 와 있는 듯 합니다.

정부는 10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때문인지 4월27일 이후 코로나 발표를 못하게 막고, 국민들에게도 코로나는 없다고 발표를 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지 두렵기도 합니다. 우간다, 케냐, 잠비아, 모잠비크 등 옆나라에서 발표되는 코로나 확진자 발표는 늘어나는데 탄자니아만 없는건지 아니면 숨기는 건지... 믿을 수 없는 정부는 정권 재창출을 목표로 모든 언론을 막아버리니 함께 사역하는 현지 동역자도 정확한 이야기를 할 수 없어 조심할 따름입니다. 21일 도착 후 집을 정리하고 그 동안 함께하지 못한 예배를 회복하며 밤마다 찬양과 말씀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은 저희가 없는 상황에서 현지 선생님이 잘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기 일로 알고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 순천 남노회에서 노회 기념교회를 탄자니아에 건축하기를 위해서 저희 사역지에 건축하게 되어 지난 월요일 24일부터 기초 터파기를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부르는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는 오전 8시에 시작한 공사가 오후 6시 일과가 끝나고, 7시30분에 예배를 시작한 후 마치면 저녁을 함께 먹는 프로그램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새로운 동역자가 생겼습니다. 한국에서 함께 온 60년 생 여자 목사님인데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조금씩 변해가는 사역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후원자와 그 모든 가족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기도제목

1. 교회건축 마무리까지 필요한 자재 구입들이 원활하고 일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기도해주세요.
2.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3. 유치원과 학교 사역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4. 케냐를 방문 할 계획이 있었는데 아직 국경이 닫혀있어서 앞으로 계획을 알수 없습니다.
5. 이병철 선교사의 양 어깨가 아직 완치되지 않아 밤마다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하루속히 어깨가 아물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6.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하시고, 기다리는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탄자니아 킬리만자로에서 이병철 박미란 올림--



한중 비자업무가 재개되어 8월말 우한 복귀 예정이었으나 국내 코로나19 재확산이 중국 내부적으로도 알려지면서 현재 입국(우한대 복귀)허가 발표가 연기된 상태입니다. 상황을 주시하며 조속한 복귀 허가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지와의 모든 소통 및 교육은 온라인(음성/화상통신)으로 진행중이며 현지 돕는 이들을 통해 제한적이거나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고려하여 창의적 사업들을 적극 준비해야 하나 아직은 대면 사업에 비해 낯설음과 번거로움이 많습니다. 어느 곳이나 비슷하겠지만 속히 이 상황이 개선되고 종식되어 대면/비대면 사업들을 신나게 추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계속 두 손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귀한 사랑과 후원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역시 우리 은혜의 가족들을 위해 손과 마음 모읍니다.

--중국 조.나단 선교사--

## 조.나단 's Love Letter



### "늘 받기만 하네요.."

기숙사 방을 옮겼다고 손에 과일을 들고 찾아와 기도하고 축복해 준 BJ음악학교의 두 분 선생님입니다. 돕고 싶어 그 땅에 갔는데 도리어 제가 늘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D선생님은 어린 학생들에게서 아버지 나라의 꿈과 소망을 보고 먼 고향을 떠나 왔습니다. L선생님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좀 더 안전하고 대접 받는 곳에 갈 수도 있었지만 날로 변해가는 아이들의 모습에 도저히 이 일을 놓을 수가 없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폐교의 위기에 놓이자 지금은 사비를 들여 여러 도시를 돌며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라 학비를 제대로 낼 수 없고, 심지어 몇몇은 아예 한 푼도 못 냅니다. 그런 아이들이 자원하여 더 열심히 학교를 청소하고 친구들을 돕는 것을 보면 찡한 마음이 듭니다. 선생님들의 급여는 매달 간신히 준비되었고 두 번의 방학 기간은 무급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한 2월부터는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줄곧 생활고를 겪다가 지난 7월부터 돕는 손길 덕분에 두 분 선생님의 급여(80%)가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 "다시 이곳을 채우소서"

BJ음악학교는 보안상 이유로 많은 학생을 모집하여 교육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과 인력도, 재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이들이 졸업 후 전국 각 처에서 준비된 일꾼으로 거룩한 빛을 발할 것을 기대합니다.



### "120만 대학생을 위해!"

우한에는 120만의 대학생이 있는데, 그 중 극히 미미한 일부만이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타지에서 온 학생들이라 대학에 머무는 4~6년의 기간 내에 이들에게 참 진리를 소개해야 합니다.



1. 우한대 복귀 허가 및 항공편이 속히 마련되기를
2. BJ음악학교 학생 모집(총15명 내외)을 위해
3. 청년대학생을 위한 On/Off-line 교육훈련을 위해

## 탈북민 성경통독 100독학교 7기생 훈련은 현재 8명이 훈련을 받고있으며 ..

은혜교회 한기홍 목사님과 성도님들 그리고 선교국에서 수고하시는 모든분들께 인사드립니다^^ 황OO교회 근황과 기도제목입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근황은, 시국이 코로나로 복잡하나 지금까지 주일 예배는 탈북민 형제자매들40 여명이 함께 잘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민 성경통독 100독학교 7기생 훈련은 현재 8명이 훈련을 받고있으며 추가로 계속 모집하고있습니다. 곧 10여명이상 될 것 같습니다.그리고 제 건강이 좋지않아 수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독반 훈련센터와 성전 건축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있습니다.

기도제목

1. 황OO 교회 예배를 통하여 탈북민 형제자매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수있도록.
2. 탈북민 성경통독100독학교 7기생들 추가 모집과 훈련받는 7기생들 모두 1년-1년6개월 사이에 신약100독, 구약20독, 암송1000절 매일 3시간 기도 훈련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말씀으로 충만한 북한출신 하나님의 용사들로 세워질수있도록.
3. 최O 선교사 건강을 위하여(현재 신장투석을 하고 있으며 9월21일 신장이식 수술을 앞두고있습니다. 수술이 잘 될수있도록)
4. 성경 통독센터와 성전건축을 위하여.

--한국 최O 선교사--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이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매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예배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리는 성김의 삶이기 때문이다(계7:9-17, 엡1:6)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존하는 하나님나라에 거하며 행하고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도 예배적인 삶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배적인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앞으로 있을 영원한 하나님나라에서 격이 없이 하나님을 대면하며 영광 안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모습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그림자적인 형태를 구약시대에 보여 주셨다. 바로 다윗의 Tent 성막이다(삼하6:12,17). 휘장없이 사방이 열려있고 언약궤는 천막의 중앙에 놓여 있어 누구나 언약궤를 대면했어도 죽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앞에 서게 된 것이었다(대상16:5).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이루어진 의의 완성을 상징하는 것이며(롬3:21-24), 다윗이 평생 여호와 집에서 살겠다고 소원한 것처럼(시27:4), 그가 언약궤 옆에서 살 수 있었던 것처럼(대상16:37-42),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적인 삶으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나타낸 것(계21:3,4)이라고 하겠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예배이다.(창1:26). 창세기 1장26절에 “다스리다”는 “아바드(□□□, Abad)”라는 단어로 “일하다, 섬기다, 복종하다”의 뜻으로 예배를 말한다. 이 말씀(창1:26)은 예배는 예배의식보다는 예배적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곧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인 것을 의미한다. 예배는 에덴에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삶이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중심에 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1,2절을 통하여 예배를 말하였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4장21-24절에서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으로 예배를 설명하고 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은 하나의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주의 자녀가 거룩과 사랑과 성김을 통해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순종하며, 경배하며 연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지상 예배는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약시대에는 정결한 곡물과 짐승의 피를 드리는 것이 전형적이었으나 신약시대는 영이신 하나님께 보혜사 성령의 힘에 힘입어 성령 하나님(신령의 의미)과 하나님의 말씀과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진정과 진리의 의미) 하나님께 합당하고 온전한 예배(영적예배의 의미)를 드리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산제사(전인격적인 삶을 드리는 것)인 것이다. 이는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예배의 의식보다는 삶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예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드려 구속사를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몸을 드려 의의 병기가 되어 주께 복종하는 것이다. 그저 육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하여 정결한 마음과 뜻과 목숨과 삶, 곧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과 진리(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찬송과 기도와 감사로 드리며, 경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삶을 맡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는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예배적 삶은 신앙의 주춧돌과도 같아서 견고해야만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강건해 질 수 있다. 고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배적인 삶을 살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심각하게 신앙을 점검해야만 할 것이다. 이는 구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그렇다.

요즈음 COVID-19사태이후 예배를 갖는데 제한적이 되어 Online예배로 대체되고 있다. 아직은 온라인 예배가 대체성을 지닌 예배이지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체형식을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대체성을 지닌 예배는 예배를 드린다는 요식행위로 끝나 신앙의 성장을 기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예배형식이 어떻게 변하던 간에 중요한 것은 예배현장이 어디든 상관없이 생동해야 하며, 원심적인 성격으로 예배와 복음이 확산되어 나가는 성격을 지녀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오늘의 현실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이 예배적인 삶인 것이다. 그 이유는 이를 상실하면 신앙은 와해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많은 선교현장들이 선교에 제재를 받고 있는 처지에다가 바이러스사태로 앞으로는 더욱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의 추세도 교회개혁과 선교활동의 모든 면이 대형화보다는 소형화가 될 것이며 Cell이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소규모 형태로분산이 될수록 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올바른 예배적 삶이 뿌리로 든든히 내려져야 한다.

앞으로 단기선교도 과거와 같은 여건이 아니 되어(비자, 항공, 활동제한 내지 금지) 호락치 않음을 예상케 한다. 이제는 정예화된, 그리고 전혀 새로운 전략으로 선교를 해야 할 때가 오는 것 같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대비하여 어디에서나 어떠한 환란에서도 배교나 낙오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음 중에서도 실제의 삶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인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 예배적인 삶의 패턴이 이론화, 전력화를 이루어 새로운 하나의 선교전략, 전술로 선교지마다 올바르게 강건한 신앙을 지닐 수 있게 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도 예배적인 삶이 중요하며, 이 시대를 복음으로 개혁하는데도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신앙은 곧 예배적인 삶이므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다른 이들이 그것을 보고 따르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도와 선교의 실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그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 이리될 때 복음은 널리 널리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될 것이다.

--김 대규장로--

8월7일 12기 64명의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2주전 8월7일 12기 64명의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3월에 거행해야 하지만 8월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27일 14기 67명의 신입생이 입학했습니다. 13기 재학생 55명을 합해 총 122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상황은 안전한 편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대만 김성수 선교사--



비자관계로 인해 내몽고로 사역을 옮기게 되면서..

저희는 작년 2019년 9월 4일에 현지로 들어왔습니다. 지역 보건소와 연합하여 보건복지행정을 도우며 복지대상자들에 대한 프로그램과 부부학교 등 가족상담과 물질적인 지원을 했고, 개척교회를 계속 섬기면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국의 모든 기독교인 대상 가정예배 회복을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비자관계로 인해 내몽고로 사역을 옮기게 되면서, 2020년 7월까지 개척했던 쿤밍은혜교회와 상담실, 복지에 관한 사역들을 모두 현지인과 현지교회에 인수인계하고 마무리하였습니다. 8월부터는 내몽고에 거주하면서 상황이 긴박해져 온라인상의 사역을 일절 정리하면서 직접적인 대면으로 상담 및 전도를 위한 교제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도 및 가정예배를 세워나가면서 건강한 가족들을 세워나가기 위한 상담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대로 사역의 방향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있습니다.

새로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매일 드리겠습니다. 주시는 헌물도 허투루 쓰지않고 기도하며 사역을 위해 귀하게 쓰고 있습니다. 본사에는 늘 감사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장O 선교사--

이곳 필리핀은 하루에 5000명의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필리핀 앙헬레스 뽀락지역 선교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곳 필리핀은 하루에 5000명의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랜 락다운 기간으로 지쳐있고 또한 일하지 않으면 굶을 수 밖에 없기에 위험한지 알지만 면 마스크 한장에 의지하여 이전의 삶처럼 살아 갈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끼니를 걱정하고 쓸 돈이 부족하니 자영업자의 수익은 감소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가 선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실의에 빠져 있는 한가정을 먹여 살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실의에 빠진 100가정에게 희망을 선물 할 수는 있습니다. 행복나눔의 손길이 진정으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은혜한인교회와 19그룹이 보내주신 행복나눔이 이곳에서도 위력을 발휘합니다. 비록 몇 번에 걸친 몇 kg의 쌀과 설탕 라면 커피등이 전부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 낼수있도록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산속 뽀락 은혜아이따교회에 물탱크 설치가 완성 되어서 우기철에는 먼 곳까지 물을 길러 가지 않을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모두가 쓰기에는 부족하여서 1년 이상 출석한 교인들 가정마다 물탱크 지원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급하지 않게 완급을 조절하여 교회의 리더들 가정부터 설치 할 것 입니다. 어느 권사님의 도움으로 2번째 교회 건축을 위해서 3곳 지역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필요한 곳에는 교회가 건설되고 빛과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에 주님이 제 생각보다 먼저 움직이시는가 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제목

1. 필리핀에 매일 5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는데 속히 확산세가 진정 되도록
2. 코로나로 인하여 직업을 잃고 끼니를 걱정해야하는 주변의 필리피노들을 위하여
3. 산속 뽀락은혜 아이따교회 교인들의 최소한의 삶과 건강을 위하여
4. 최근 집 주변에서도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 가정을 지켜주소서
5. 아이따 피딩사역을 계속해서 지속하도록
6.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세계선교에 앞장서는 모든 교회들 위에 주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재하도록

--필리핀 김인수선교사--